

MAGAZIN Vol. 03

프시케 Story

Psyche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이다.



프시케 Story
창간 배경

심리학과, 귀를 기울이다.

난 2012년 10월, 심리학과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발전계획안 및 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3~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제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현 심리학과에 존재하는 문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발전, 소통(疏通)으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들 중 과내 소식지 (프시케 스토리) 발간을 제안한 '프시케 스토리'팀 (황제욱.07, 정지연.10, 황해지.10)이 대상을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최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심리학과 내 소통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내 소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시케 스토리'는 동기들, 선후배 뿐 만 아니라 교수님, 대학원-학부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프시케 스토리?!

심리학(Psychology)의 어원인 프시케(psyche)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공주 이름으로 갖은 고난을 거치고 정화된 후에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상징을 의미한다. 프시케 스토리에는 학과 행사, 취업관련 정보, 수업 정보, 공지 사항은 물론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Contents로 구성하여 학과 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리학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프시케 Story
Vol. 03

CONTENTS

- 04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세 번째
- 06 심은정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08 자격증 좀 따볼까?
- 10 인간공학심리 실험실
- 12 취업스토리
- 14 새내기들의 심리탐구
- 16 Healing의 심리학 세 번째 이야기
- 18 생활 속 심리학

청춘!

우리들의 추억 그 세번째

2월 12일 새내기 OT & 대학원탐방

이 날은 우리 새내기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자 선배들이 조별로 새내기들에게 수강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날이었죠! 앞으로 나와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탐방도 했는데요,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원 선배님들의 친절한 설명에 새내기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2월 13일 수강신청 & 간다게임

오전에는 사회대 컴퓨터실에 모여 한 학기 동안 들을 수업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신청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간다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각각 다른 미션을 진행하면서 선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비가 조금 내리고 추웠지만 새내기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짧은 시간 준비했던 장기자랑도 선보이고, 신입생들의 단결력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4학번 정다솜 강대 후기

"처음에는 간다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장기자랑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때는 이 건물 저 건물 찾아간다고 다리도 아프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간다게임 덕에 학교지리를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2월 21일 학위수여식

2013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 모두모두 축하드립니다.

2월 22~23일 가족 MT

14학번들이 처음으로 떠나는 엠티! 송정 바닷가에서 뛰어 놀다 숙소에서도 재미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밤에 열렸던 뒤풀이 때는 이동훈 교수님과 조교선생님께서 방문하셔서 치킨을 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4학번 윤영준 강대 후기

"처음으로 같은 과 동기들, 선배들과 떠나는 엠티라 설렸습니다.

조금 어색했던 동기들과 이런저런 게임을 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선배들도 친근하게 잘 대해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끄)"

3월 7일 개강 총회

학기가 시작했음을 제대로 알리는 행사인 개강총회가 3월 7일에 열렸습니다. 14학번 학생회와 편입생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3월 22일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복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조교선생님, 교수님이 모두모두 모이는 심리학과와 가장 큰 축제인 신입생 환영회! 재미난 게임들과 대학원 소개, 그리고 강사님의 특강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신복엠티의 꽃인 장기 자랑은 이번년도가 특히 더 재미났다는 소문이~ 게다가 이번에는 아르피나 유스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더 넓은 무대와 좋은 시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4학번 이안영 강대 후기

"열심히 준비했던 장기자랑이 끝나는 날이라 시원섭섭했고, 많은 선배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 좋았어요!"

4월 4일 사회대 출범식

4월 4일에는 사회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대 출범식 줄여서 사출이 있었습니다. 각 학생회장들의 웅립식을 통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심리학과 의 정연목 학생회장님은 무려 곤룡포를 입고 가마를 탄 임금의 모습으로 호위무사들의 엄호를 받으며 등장...!! 단연 돋보였습니다. 심리학과 짱짱!



5월 16일 야구 관람

중간고사도 끝나고 여러 학번이 모여 야구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롯데 vs 넥센의 경기였는데요, 이 날은 기분 좋게도 롯데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야구는 역시 다 같이 응원하는 재미죠~ 사직 나드르!! 2학기에도 함께해요! ^^

14학번 노치현 강대 후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동기들이 몽치고 선배님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정말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따로 야구장을 가서 같이 피자도 먹고 재밌게 야구도 보면서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롯데가 이겨서 더 좋았구요. ^^"

5월 13~14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 학생회에서 미리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작은 꽃바구니이지만 저희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감사합니다♥



프시케 심은정 교수님 인터뷰



봄 내음이 물씬 풍기던 사회대 캠퍼스가 어느덧 여름의 싱그러움으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저희 부산대 심리학과에 매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수님이 부임하셨는데요~

심은정 교수님은 덕성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립 살레시안대학교에서 임상 심리를 전공 하셨습니다.

우와~지성에 미모까지?? 우리 심리학과 학우분들 심은정 교수님에 대해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신비주의의 베일에 쌓여있으시던 심은정 교수님을 심층 인터뷰 하겠습니다.

이하 인터뷰는 지면상 Q와 A로 하겠습니다.

0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 인상과 부산에서의 삶은 어떨신가요?^^

매우 열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희 임상실험실의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긍정적 에너지가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듯 편안했구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는 데 늘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행복합니다.

02 교수님은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는 자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과 같은 의학적 질환을 지닌 환자군에서 자살률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은 자살의 유의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암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상당수의 환자들이 유의한 수준의 자살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구요. 그리고 암 질환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개입하는 정신종양학(Psycho-oncology)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3 요즘은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현재는 암 생존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암 진단 및 치료의 장기적인 후유증 및 전반적인 삶의 질 및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대해 탐색하려는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태도와 자살경향성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04 연구하실 때 느끼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것인가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의 대상이 주로 임상환자군이다 보니 환자 recruiting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병원의 의료진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 하지만 임상 환자군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환자군의 자료는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표집상의 여러 한계에 봉착할 때가 많은 듯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한국의 연구 지원구조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연구에 대한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05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심리평가나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학적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까지는 다소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낙인 등이 더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06 교수님처럼 외국에서 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해당 국가의 언어 습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이나 상담심리학의 경우 분야 특성상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나라 내담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나라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7 마지막으로 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해 줄 말씀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종류의 '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첫째가 '황금', 둘째가 '소금',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저도 늘 과거에 못했던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사는 데,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지금 여기'의 초점을 강조하는 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은정 교수님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내내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 받았고, 앞으로 심리학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이나 좀 따볼까?!

요즘의 사회에서는 취업난과 스펙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떠올리게끔 하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스펙쌓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것 말고, 나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은 없을까요? 특히나 심리학도에게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심리학도들이 취득할만한 경쟁력 있는 자격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1 경영지도사 자격증

경영지도사는 기업의 경영에 대해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최근에는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경영 지도의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유용성이 많아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재무관리, 인적자원 관리, 마케팅, 생산관리의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적자원 관리와 마케팅 분야가 심리학과 학생이 도전해볼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시험은 1차, 2차로 나누어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공통 과목으로 중소기업관련법령, 경영학, 회계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이렇게 6과목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경우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3개의 과목이 있고, 마케팅 분야의 경우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3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많은 만큼 취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유용성이 있고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0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나, 지하철 사고 등은 이러한 전문가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해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격증은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석도의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치는 시험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으로는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알아보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의 요소로는 기계도 있지만, 심리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심리학과 학생도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자격증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자격시험은 2년에 한번 실시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trats2020.kr/index.js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점역교정사 자격증

점역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전문가입니다. 갈수록 시각장애인과 책들이 많아지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책은 곧바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자격은 조금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격증은 1, 2, 3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3급은 국어과목의 점역 교정지식을 검정하며 2급은 영어, 과학, 컴퓨터, 음악과목을 검정합니다. 그리고 1급은 전 과목 점역교정시험이 있습니다.

언뜻 심리학이랑은 연관이 없어보일 수 있지만 소개하는 이유는, 인간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점역교정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전문출판업체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buwel.or.kr/Home/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은 한 명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들 말하곤 합니다.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많이 뽑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틈새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조금 더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과 기계의 조화, 인간공학심리실험실



김지혜 wisdom4827@nate.com



사회관 5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심리학과 실험실! 모두들 그 안이 궁금하셨죠? 이번 호 부터 심리학과 실험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험실 소개!!! 그 첫 번째 시작은 인간공학심리실험실로 젠틀 하시고 위트 넘치시는 이재식 교수님이 지도교수님으로 계신 곳 입니다*^^*!!

인간공학심리학이란 인간의 정보처리 역량과 한계를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

나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과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부산대 인간공학심리실험실은 1996년 9월 이재식 교수님의 부임과 함께 개소되었습니다. 이후 인간공학심리 연구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간공학심리실험실 연구의 시작

“자네가 운전자의 특성과 교통사고의 본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서 교통사고로부터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자네가 공부한 보람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는 조대경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재식 교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이것이 매우 와 닿아 이재식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이를 염두하시며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공학심리실험실에서는 음주가 운전자의 운전수행에 미치는 영향, 차량 추돌 경고시스템 개발, 운전자의 상황인식 측정과 훈련, 선박 항해사의 상황인식 훈련 프로그램 개발, 정보처리에서의 개인차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지능력 저하 운전자(고령운전자, 뇌손상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분들 등)에 대한 운전수행능력 진단과 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분들의 운전역량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진단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실제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공학심리실험실에서는 이들이 과연 운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아가 운전역량이 저하된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혹은 뇌손상을 경험한 환자이니까'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과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전자 집단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이해와 함께 이들이 실생활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공학심리실험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재식 교수님은 실험실 제자들에게 탄탄한 학문적 소양을 기초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의 기초지식과 통계학을 포함하는 연구방법론과 실험설계, 그리고 연구기획과 연구수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향후 계획과 최종목표

인간공학심리실험실은 '운전자 정보처리와 행동분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계속 진행 할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항해사 상황인식과 해양관제사 정보처리'와 관련된 프로젝트 또한 준비 중입니다. 이재식 교수님은 심리학 지식에 기초한 현실문제의 해결 범위는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 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심화된 심리학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며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수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 대학원 실험실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으로 실험실 소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이재식 교수님과 인간공학심리실험실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취업 스토리!

벚꽃이 만연하던 봄은 가고 어느덧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진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방학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취업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들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를 만끽하며 대학생활을 즐기다 보니 저도 어느새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저와 같이 취업을 앞둔 선·후배 분들의 고민을 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올해 학부과정을 마치고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10학년 최민지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회완 ui0oop32@naver.com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독자들을 위해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M: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선·후배 여러분 저는 2014년 2월에 부산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10학년 최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1 우선 선배님이 일하시는 곳이 무척 궁금합니다. 선배님이 다니시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M: (주)휴노는 다양한 심리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대학·학교 등에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3년에는 '사이키(Psy Key)'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용자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심리검사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2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회사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 곳을 알게 되셨나요?

M: 대학교 3학년 때, 누다심의 심리학 아카데미에서 하는 심리학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가기 전,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현장인터뷰'를 읽고 가는 것이 준비 활동이었습니다. 그 때, 현장인터뷰 게시판에서 '휴노(前 휴노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심리학회 취업정보 구인란에서 '휴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죠.

03 선배님의 회사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배님은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M: 저는 연구개발팀에서 '초·중·고 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심리검사를 개발하고 보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심리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모으고, 표집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 분석합니다. 개발한 검사에 오타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학교에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와 관련된 사무 작업을 합니다. 회사 구조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팀 업무를 맡아서하기도 합니다.

04 그럼 그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조건이 따로 있나요?

M: 우선 연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등 심리검사 관련 분야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엑셀 SPSS에 능숙하다면 회사 일을 하는데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공과 밀접한 직업인만큼 학회·심포지움·교육 등에 참여해보거나 '연구 포트폴리오'로 제출할만한 결과보고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과제물 등을 한번 추려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05 제가 듣기에 학부생으로는 처음으로 채용되었다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M: 일단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학사급 연구원 인력이 필요했고,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또, 학부 때 썼던 Report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때, 산업심리학, 연구방법론, 동기심리학 등 강의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연구 포트폴리오로 제출했었는데 두 분 대표님들과 이사님께서 매우 흡족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저의 성격과 태도가 가진 장점을 잘 드러낸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네요.

06 리포트를 연구 포트폴리오로 제출하셨다는 것이 참 인상 깊어요. 마지막으로 선배님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M: 후배들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기쁩니다.

사실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인내심'과 '책임감'을 많이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본 후 이 길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지 선배님과 함께한 인터뷰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지금부터는 최민지 선배님이 소개한 회사 이외에 우리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분야

영업 분야는 TO가 가장 많으며, 학과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리학 전공이라는 점이 무기로 활용될 수 있지요. 소비자심리학/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을 내세워 영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과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것이 아쉽네요.

마케팅

마케팅에서도 슬슬 심리학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비자심리학/커뮤니케이션 심리학/광고 심리학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외의 광고학, 미디어, 언론학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광고홍보학과나

미디어학과, 언론학과 등의 복수/부전공자들, 혹은 마케팅관련 입상자들이 마케팅 분야의 취업 도전에 유효해 보입니다.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 분야에서 역시 심리학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컨설팅 회사의 채용에 있어 교육학/교육심리학이 우대된다는 점에서 교육 심리학을 배우지 못한 심리학과생에게는 비교적 불리합니다.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

경찰청에서 모집했던 범죄심리분석관은 몇 년동안 수요가 없습니다. 또한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채용 모집이 있다면 범죄심리사 1급을 준비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범죄심리분석관을 채용했었던 때에 자격요건은 분명 심리학 학사 이상이었지만 채용된 분들은 대부분 석사, 박사급, 혹은 다른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범죄심리학으로 취업을 하시려면 위와 같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분야

전문 심리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그간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돈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 심리상담사가 된다면 내담자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나요? 여러분의 특기와 장점을 살려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내기들의 심리 탐구



2014년이 되면서 심리학과에 14학번 새내기들이 입학하였습니다. 13학번인 저는 이제 현내기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새 학기가 시작 한지도 꽤 되었는데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 새내기들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새내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장세영 "안녕하세요!"
 새내기들 "(다같이) 안녕하세요!"
 장세영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다솜 "14학번 심리학과 정다솜입니다."
 이석범 "저는 이석범입니다."
 윤영준 "저는 윤영준입니다."
 안중선 "저는 안중선입니다."

(편의상 물을 질문은 'Q'으로, 정다솜은 '정'으로 이석범은 '이'로 윤영준은 '윤'으로 안중선은 '안'으로 축약했습니다. 저는 존칭을 쓰지 않은 점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Q1 대학교에 입학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다녀보니 어때?

- 정 "선배님들도 좋고 교수님 분들도 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웃음)"
- 안 "재밌어요!"
- 이 "선배님들 너무 좋아요!"

Q2 대학교 와서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

- 정 "연애요. (다같이 웃음) 여행도요. 동아리."
- 안 "자취방에 친구들 모아서 축구 보면서 치킨 뜯기. 최근에 새벽 축구를 보면서 했어요!"
- 윤 "전 총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 정 "오~이뤘네 난 못 이뤘다.(웃음)"
- 이 "저는 낮잠이요."
- 정 "공강시간에 가서 술도 마시고 낮잠도 자는 거요~ 헤헤"

Q3 총대 맡아보니까 어때?

- 윤 "재밌죠. 애들이 말도 참 잘 듣고, 과 생활도 정말 잘 하고 내리는 것도 제때제때 내고~ (다 웃음)"
- 장 "그래도 14학번들은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부러워 총대 덕분인 것 같더라."
- 모두 "맞아요. (박수)" 윤 "감사합니다."

Q4 혹시 동아리 하는 사람 있어?

- 정 "저요! 저는 해오름에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신나게 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생각보다 백박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고 보람되고 재밌었어요."
- 안 "맞아요. 저도 해오름 멤버예요! 일정이 정말 실 틈 없이 짜여 있었어요. 대동제 준비할 때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공연준비를 했었거든요."
- 이 "저는 해도비예요! 해도비는 너무 낄낄해서 좋아요~"
- 장 "셋 다 사회대 동아리에 들었구내!"



Q5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 이 "낮잠을 잘 수 있어요."
- 안 "술을 마실 수가 있어요."
- 정 "가장 큰 건 역시 야자짚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교는 훨씬 자유로워요. 가끔씩은 땡땡이도 쳐보고. 하지만 제 행동이 성적에 직결하는 것이라,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들어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정정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 윤 "수업 방식 자체가 달라요.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대체로 방대한 편인데, 대학교는 좁고 깊게 공부하죠. 자신이 그 공부와 안 맞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불만인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 "맞아. 그러니까 전공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해."

안 "공강시간이 길면 어정쩡하기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정 "게다가 자기 전공만 공부하니까 전공 이외의 영역에는 심하게 무지한 경향이 있어요. 다른 전공인 친구들과 이야기가 안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크게 다른 것 같아요."

Q6 심리학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뭐야?

- 정 "저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심리학이 가장 재밌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어요."
- 이 "저는 중학교 때 심리학과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심리학과를 오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했어요."
- 안 "저는 예전에 이청룡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우연히 한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신체적 부상보다 그에 기인한 정신적 충격에 의한 선수 기량 감소가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후로 '팀 닥터'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공포를 덜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 팀 닥터 : 운동 경기에서 한 팀의 선수들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윤 "뚜렷한 목표가 없을 때에는 경영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심리학 서적인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를 읽게 된 뒤로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고, 심리학과에 지원했어요."

장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참 많네요! 공통적으로 다들 심리학을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온 것으로 보여요."

Q7 심리학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익명제보
"전공시간에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그리고 13학번 선배분들과의 잦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행사들이 다 취소되어서 아쉽네요."

장세영 js00115@gmail.com





Healing의 심리학 세 번째 이야기

엑스페리먼트 (The Experiment, 2010) 실험 스릴러 | 2010.08.11 | 95분 | 미국 | 15세 관람가 | 감독_ 폴 셰어링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심리학도라면 모두가 들어보았을 필립 짐바르드 교수의 '스텐포드 모의 감옥 실험'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트래비스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만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갈 돈을 구하기 위해 신문광고에 실린 심리실험에 참가한다. 그 실험의 연구목적은 심리적인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고, 주립 감옥 시설 내에서 2주간 진행되며 일당 천 달러를 지급한다.

박사는 모인 참가 희망자들에게 몇몇 참가자들은 인권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리고, 인터뷰와 간단한 실험을 실시한 후 참가자를 선정한다.



참가자들은 버스를 타고 감옥 시설에 도착한다. 박사는 참가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폭력이 발생할 시에는 그 즉시 실험이 종료된다고 알린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간수와 죄수로 나누어지고, 간수에게 주의사항이 내려진다. 수감자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규칙을 어길 경우, 30분 안에 상황에 적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붉은 등이 켜지고, 실험이 끝나버려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이 실험에서 이탈한다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실험이 시작되고, 감옥 안의 모든 상황은 CCTV가 지켜보고 있다. 간수들은 처음에는 붉은 등에 불이 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심스레 수감자에게 처벌을 내린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되어 갈수록 간수는 실험상황이란 것을 잊은 듯이 수감자를 실제 죄수처럼 취급한다. 강제로 식발시키기, 얼굴에 소변보기, 성적학대, 맨손으로 변기 청소하기, 변기 물고문 등 결국에는 사망자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붉은 등은 들어오지 않는다.

영화는 실제 실험과는 다르게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마무리된다. 집단싸움이 일어난 뒤에야 붉은 등이 켜지고, 실험이 종료된다. 사람들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이것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만일 선량한 사람을 나쁜 환경에 집어넣으면 궁극적으로 선량

한 사람이 승리를 거둘까? 아니면 환경이 그를 오염시켜버릴까? 이 물음의 대답은 환경이 승리를 거두어버렸다는 것이다. '엑스페리먼트'는 사람이 상황에 굴복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단순히 조작을 가한 실험이고, 허구성을 가미한 영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 예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아부그라 이브 포로수용소의 포로 학대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인간이 가진 본능 혹은 본성은 상황이 주는 힘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특별하게 볼 점은 개개인의 심리적 변화와 공포감, 생명의 위협에 대한 표현력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억눌려있던,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광포하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변하는지, 또, 정당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상황이 가하는 폭행들이 한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볼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다. '상황은 인간을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게 만든다.'

신비한 능력 감정이입능력



내가 만약....
내가 만약 옥수수 침팬지 빛 건물 그리고 네가 된다면...

옥수수를 알기 위해, 침팬지를 알기 위해, 빛에 대해 알기 위해, 건물에 대해 알기 위해
그들은 옥수수가 되었고, 침팬지가 되었고, 빛의 알갱이와 건물이 되었다.
내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이 되는 방법은 <내가 만약 너라면> 라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 내가 만약 옥수수라면 어떻게 자랄까?

자신을 한 그루의 옥수수라고 생각한 바바라 매클린톡.
그러자 그녀는 옥수수 안에서 그 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옥수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안의 염색체까지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바바라 매클린톡은 옥수수 유전학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 내가 만약 빛이라면 무엇이 보일까?

빛 알갱이가 되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탐험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 내가 만약 건물이라면 어떤 건물이 되고 싶을까?

벽돌 한 장과도 대화를 나누며 건물의 본질을 연구한 건축가 루이스 칸.

• 그리고 내가 만약 침팬지라면 하루 종일 뭘 할까?

침팬지가 되기 위해 매일 새벽 숲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 앉아 침팬지를 기다린 제인 구달. 동물학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
는 제인 구달은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려면 냉정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침팬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감정이입을 통해 얻은 것이다." - 제인 구달, 동물학자

남의 아픔을 보며 아픔을 느끼고 남이 울면 따라 울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감정이입 능력은 순식간에 다른 존재의 몸과 다른 존재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다.

출처 : EBS 지식채널e-신비한 능력

본 행사이정 이외에도
여러사정으로 주최하지 못한
학과행사등을 학생회에서 준비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2학기 심리학과 학사 및 행사일정

9월 개강총회
가을신행
문창제

10월 주말
대학원생 연구발표회

11월 심리학과 홈커밍데이
심리학과 학술제



프시케 스토리 기자단



12학번 함은영



임상심리전공 백서연



발달심리전공 김지혜



09학번 박은철



11학번 노희완



13학번 김나희



13학번 장세영



프시케 Story

발행일 2014. 6. 11
발행처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회관 416호)
Tel 051. 510. 1561
Fax 051. 581. 1457
홈페이지 psy.pusan.ac.kr
기획·편집 부산대학교 심리학과